



Trend-Spotting 2006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지점들 갤러리 현대 7.13 - 8.2

전 시제북 (Trend-Spotting)은 경향, 흐름을 의미하는 트렌드(trend)와 어떤 한 지점, 작은 점을 의미하는 스폿(spot)을 합성한 단어이다. Spot을 현재 진행형인 -ing 형태로 동사화하여 말 그대로 '트렌드에 점 찍기'라는 단어를 만들어보았다. 즉,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점들'이지, '트렌드를 만드는 각각의 지점들'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이 전시는 통합된 하나의 미술계 트렌드가 무엇이라고 딱 잘라 제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7명의 작가가 만들어내는 각각의 세계, 지점들을 보여주고자 한 전시이다.

한편 (Trend-Spotting 2006전)은 갤러리 현대에서는 처음으로 기획한 국내 20~30대의 차세대 작가들로만 이루어진 젊은 전시로서 앞으로 갤러리 현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전시이다. 갤러리 현대는 그동안 아티스트 갤러리라는 별도의 창구를 통해 그동안 실력 있는 신진작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해 왔으며 이번 전시는 그간 관심과 노력이 가시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주로 국내 중진, 원로 작가가 내지는 해외의 유명 불루칠 작가들과 일해온 갤러리 현대로서는 이런 전시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통할 만한 탄탄한 실력을 갖춘 국내 젊은 작가군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대 중반 작가부터 30대 후반의 작가까지, 의무적인 젊은 작가 7명이 만들어내는 작품세계는 모두 독특하고 신선하다. 각자의 세계는 달라도 이들의 작업을 넓게 풍

경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묶어 보였다. 풍경이라 하면 으레 떠올리는 산수화를 그리는데 서문에는 이들 중 유일한 동양화 작가이다. 그러나 전형적인 개념의 산수화가 아니라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서문에서 퓨전산수는 작품마다 자신의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그려넣어 풍류를 즐기는 무릉도원을 보여주며, 산수와 운동을 결합한 '스포츠 산수'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인다. 실내풍경을 그리며 남경민은 초현실적인 분위기의 심리적 공간을 만드는데, 가을, 투명 유리병, 깃털, 화면 가득한 나비들이 실제와 환상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미술적인 공간을 연출한다. 육방과 환상을 담고 있는 동시에 소외되고 불안하며 상처받기 쉬운 예술가의 미적 자의식을 보여주는 내적 공간이다. 한편 민성식은 독특한 시점과 구도로 현실과 상상이 결합된 동경(憧憬)의 공간을 시원스럽게 그려낸다. 휴식과 탐주를 향한 현대 도시인의 욕망을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비행기, 보트, 낚시대 등의 메가들을 통해 표현되며 강렬한 색채와 과감한 화면분할은 긴장과 동시에 명쾌한 느낌을 준다.

독일에서 10년 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얼마 전 귀국한 변용필의 자화상은 여느 자화상과는 차별된다. 눈썹과 머리카락을 생략하고 그린 얼굴은 작가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정면을 응시하는 인물은 그나마도 전면 그대로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손이나 물건으로 입 또는 코를 가리고 있는 모습이다. 자신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일그러뜨리고 다른 사물과의 조합을 통해 얼굴의 고유한 이미지를 변형시킴으로써 작가는 자



1. 신명진 (『Painting 3』 캔버스에 유채 170×146cm 2006
2. 이연미 (『피들은 잠결다리』 캔버스에 유채, 아크릴, 석연필 112×191cm 2006
3. 남정민 (『5개의 방이 있는 실내공간』 캔버스에 유채 130×162cm 2000
4. 서은애 (『신산유곡충추함도』 한지에 채색 118.5×308.5cm 2006
5. 변응필 (『한 시림으로서의 자화상』 연각 캔버스에 유채 130×130cm(개별작품) 2003(원숙) 민성식 (『보트의 꿈』 캔버스에 유채 145.5×227cm 2006(오른쪽)
- 이태 · 신영미 (『선인장』 패브릭에 아크릴 100×60cm 2006
- 원종페이저 · 원복부터 서은애, 손유정 큐레이터, 이연미, 변응필, 민성식, 신영미, 남정민, 신명진. 배경작품은 민성식 (『피자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캔버스에 유채 260×324cm 2005



기 자신이 아닌 타인의 모습임을 말해준다. 즉, 변응필이 만들어낸 자화상들의 나열은 마치 풍경화에도 같은 인간 존재의 지형도를 보여준다. 한편 신영미의 그림에는 자신과 닮은 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꿈속에서나 나올 법한 몽환적인 풍경의 세계가 펼쳐진다. 검은 머리를 길게 땀은 소녀들이 숲에서 그네를 타거나 나무에 거꾸로 묶여 있거나 오리를 타고 노는 장면은 꿈중을 불러일으키는 내밀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중상적 느낌의 소녀들은 자이를 찾아가는 과정에 서있는 작가의 현재 모습이다.

참여 작가들 중 나이가 가장 어린 대학원생 이연미는 영기적인 상상 속 풍경을 그려낸다. 언뜻 동화책의 예쁜 삽화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심중한 장면들이 펼쳐진다. 방금 땀을 잡아먹은 듯 부리에서 피를 뚝뚝 흘리며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는 새,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얼굴을 통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풍경인지 모를 그 로테스쿠한 동화의 세계를 보여준다. 화면 전체에 깔린 부드러운 파스텔 톤 색채는 뒤에 감추고 있는 모종의 잔혹극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시치미를 떼며 이 어린 작가의 상상의 풍경에 시선을 고정시키게 한다. 미지마음으로 명명선은 집단 '막'이라는 팀을 결성해 수년간 팀 프로젝트 작업을 해오던 작가이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개인 작품 전시를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인 그는 신선하고 독특한 인물화를 그린다. 고려를 화에서 차용한 면죄대 위에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서 차용한 벌거벗은 여성이 앉아 있

다. 이 두 가지 이질적인 것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충돌은 불경스러우며 불편함마저 불러일으킨다. 성(性)과 속(俗)을 대표하는 아이콘들의 불온한 결합은 내용면에서 이질적인 풍경일 뿐 아니라 화려한 컬러로 세밀묘사된 좌대와 상대적으론 대충 그려진 듯한 여인은 표현형식 면에서도 판적이고 키작적이다.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신이 상상하는 피라디이스의 세계를 그리는, 또는 꿈속의 풍경을 그리는, 외롭고 불안한 심리상태를 그리는, 7인의 작가는 모두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자신의 주변, 즉 미시적 영역을 통해 세련되게 가시화하고 있다. 구상화하려는 다소 진부한 형식의 카타고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적 형식, 개인적 이야기기에 집중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언어를 통해 그려나가는 이들의 작업은 화화의 새로운 지형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 2006년을 시작으로 갤러리 현대에서 해마다 선보이게 될 <Trend-Spotting>전에서 다양한 흐름, 다양한 시각, 다양한 언어들이 혼재하는 가운데 미술의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